

# 전주시,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소년심판 · 그해 우리는 ·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화제 드라마 잇따라 촬영

2020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 4개 부문을 휩쓸며 한국영화의 역사로 기록된 '기생충' 촬영지로 주목받은 전주와 전라북도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촬영 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 촬영이 선호되고 있는 점과, 극장 관람객 감소와 맞물린 OTT 플랫폼 및 드라마의 강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소년범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연희지방법원의 주 촬영지는 만성지구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로, 세트에서 촬영된 법정장면을 제외한 주요 법원 장면들이 촬영됐다. 또한 9화의 심은석 판사(김혜수)가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달려 나가는 또 다른 법원 외관 장면은 전주대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소년심판'은 지난해 4월부터 5월에 걸쳐 8회차를 전주 지역에서 촬영했다.

또 얼마 전 종영된 SBS 인기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최우식과 김태리의 캠퍼스 장면 역시 전주대학교가 배경이다. 전주대 후문에서 이어지는 가로수길, 캠퍼스 곳곳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한 '그해 우리는'의 주요 촬영지는 전주 한옥마을로, 최용(최우식)의 부모님 가게와 근처 골목길, 최용의 일러스트 그림 작업과 함께 오버랩되는 마을 전경이나 철물점 등 과거와 현재에 걸쳐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이 한옥마을 일대에서 촬영됐다.

사극은 물론 아가자기간 로맨스물의 배경 장소로도 인기 높은 전주 한옥마을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김태리, 남주혁 주연의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하다. 1998년 IMF 시대를 배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경으로 두 주인공이 잔잔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향수 어린 공간으로서, 회도(김태리)의 집과 집 앞길은 한옥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집과 언덕길에서, 드라마 2회에서 회도가 이진에게 달콤한 비밀의 말을 건네는 터널 장면은 한옥마을 천변 끝자락에 위치한 한 벽당 터널에서 촬영됐다. 극중 남주혁이 아르바이트하는 만화방은 한옥마을 옆 서학동 예술마을의 음악작업실을 개조한 것이다.

전라북도가 가진 지리적, 환경적 장점도 그 이유다. 1980년 광주의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큰 감동을 이끌어냈던 KBS 드라마 '오월의 청춘'의 시대적 배경 일부는 군산에서 촬영됐다. 근대건축물과 내항 등 독특한 장소들을 바탕으로 군산은 현대사극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김제 새만금 간척지는 최근 가장 주목받은 촬영지로, '김담: 아신전'의 황량한 벌판과 좀비 때의 스케일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김담'의 김은희 작가와 이은복 피디, 전지현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지리산'은 남원시가 제작지원한 작품으로, 남원과 지리산 일대에서 촬영됐다. 그 외, 잔잔하면서도 강렬하게 파고드는 허진호 감독의 드라마 '인간실격' 초반부의 강재(류준열) 친구의 가슴 아픈 장례식은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연출된 장면이다.

한편 박소피스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상산고등학교, 익산 중앙의원 등에서 촬영한 작품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품 할인 기획전 진행

5월까지 '봄날의 공예' 이벤트도 열려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봄맞이 기획상품전 '봄날의 공예'를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 타이틀 '봄날의 공예'는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 우리 생활공간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기간은 5월까지로,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 내 기획전에서 진행된다.

기획상품으로는 꽃으로 디자인된 목단 머그컵과 연잎 수반, 내비가 내려앉은 듯한 디자인의 1인 차 도구 세트인 날개인 퓨즈, 화사한 색상과 독특한 공예기법으로 제작된 손잡이 찻잔인 자연(머그)과 커피 세트 등 총 26종의 공예품이 기획전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10% 할인을 적용해 4500원(수달 머그네틱)부터 9만원(백자 천공 주병 세트)까지 다양하다.

특히 10만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 전시관이 직접 주문 제작한 누비 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누비 매트는 일상에서의 상처 입과 실내장식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매트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 또는 전주공예품전시관 온라인 쇼핑몰 '명인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 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배송비는 무료다.

김혜원 팀장은 "개성있는 모양, 기법, 색상을 담은 공예품으로 엄선했다"며 "신혼부부 또는 집들이 선물 등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 센스 있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어르신 공연팀, 실버예술가 도약 기대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주관단체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최근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주관단체로 선정, 국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버마이크 권역 주관기관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해 강원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5개 재단이다. 실버마이크 전북권 사업명은 'Jeolla 멋 眞'으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어르신 공연팀의 공연을 통해 전라북도의 참된 멋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어르신 공연팀에게 양질의 무대를 제공해 공연자로서의 자존감을 고취시켜, 어르신 중심 무대 공연 마련을 통

해 주제적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 공연팀은 구성원 전원이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공연팀이며, 총 20개 팀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대중음악, 양악·국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이다.

5월부터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한 팀당 5회씩 공연으로 총 100회의 공연을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와 모집 기간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다양한 지역·세대 간 교류를 통해 어르신 공연팀의 한 단계 발전된 실버예술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며, 사업을 향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장은성 기자

## 제11회 남원 용궁 산수유 축제 비대면 개최

남원시 주천면 발전협의회(회장 최창호)가 용궁 산수유 축제를 오는 26일 용궁마을 산수유 군락지와 주천면 풍해세 커피숍 2층 야외무대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봄의 전령사 축제인 용궁 산수유 축제는 지난 2년간(2020~2021)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산수유꽃 돌담길걷기, 사진촬영대회, 그림그리기, 노래자랑 등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용궁 산수유 꽃 축제는 지리산 영재봉 자락 용궁마을에 예부터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찾기 시작했

고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축제 공모에 선정, 지금까지 축제가 이어져 금년에 11회째를 맞고 있다.

산수유꽃 돌담길 걷기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용궁마을 돌담길을 걷고 사진을 촬영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면 면사무소에서 1인당 2천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교부한다.

사진촬영 대회는 용궁 산수유를 주제로 촬영하여 27일까지 제출하면 심사해 금상 3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의 시상금을 행사당일 시상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산수유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 2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하여 금상 20만원, 은상 10만원, 동상 5만원, 장려상(2명) 3만원의 시상금을 행사당일 시상한다.

노래자랑은 마을별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주천내 풍해세 커피숍 2층 야외무대에서 26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유튜브 남원외라, 남원시TV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시상금으로 대상 50만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장려상(4명) 5만원이 수여된다.

최창호 발전협의회장은 "지리산자락 용궁 산수유와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대박물관, 지역민 위한 목요시네마 개막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은희)은 영화를 매개로 지역민을 위한 목요시네마를 17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목요시네마 뮤즈는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지역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기다림 속에 봄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다양한 문화적 담론을 이끄는 영화들로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월 '임인년, 호랑이를 소재로 한 영화'를 시작으로 4월엔 '소리없는 아우성, 장애를 넘어',

5월 '어린이날 100주년, 동화같은 판타지 영화', 6월 '뮤지컬, 고전부터 현재까지', 7월 '다양성이 존재하는 독립영화', 8월 '영화로 만나는 실화의 목지함', 9월 '마음을 움직이는 성장 로드 무비', 10월 '고전명작영화', 11월 '노동자의 인권, 울림있는 이야기', 12월 '영화 속 다양한 music & story' 상영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다양한 문화 소통의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를 매개로 지역민과의 다양한 연계 및 목요시네마 뮤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초청 영화 상영도 별도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